

社說

공직기강 바로 세워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타난 포천시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그 이유가 다양하다.

특히 외부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경우에는 공무원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 억울함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여론이다.

특히 포천시 아트밸리 조성사업의 경우, 특별한 천체지반이나 공사물량증가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암물량증가와 가드레일 물량변경을 이유로 7회에 걸쳐 11억6천784만7천원의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또한 공무원정기평가 및 승진후보자 명부 미작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분명 억울한 측면이 있을 법하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다.

외부감사에서 지적된 특이한 건이 선물수수다. 4명이 선물을 받아 감사에 지적됐으며 훈계와 견책을 받았다.

이제는 아예 용도변경을 실시해 다른 사무실이 입주해 사용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원인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취약지역 보건진료 업무 소홀도 큰 문제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철저한 분석과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심각한 것은 공무원이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위반(도박)으로 징계처분된 사실이다.

포천시민을 주인공으로 섬기겠다는 공무원의 자세가 결여된 이들의 문란한 태도는 심각하다.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따져 물어 다니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의원들이 먼저 반성했다. 공무원들이 이처럼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반복하여 실수하는 것은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밀도 있게 진행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다.

그렇다. 의회 의원 1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입증되고 있다. 감사현장에서 송곳 같은 지적으로 꿰뚫었던 것이 터지게 하고 그것이 다시 새살이 될 수 있도록 감사를 해야 한다.

업무부고 시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발표한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할 사항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답하는 시의원들에게 과연 이같은 주문이 통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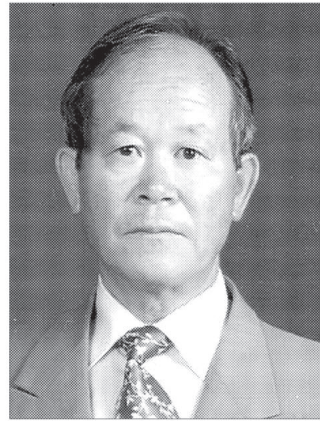
행정사무감사 현장, 포천시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단 한 사람의 시민방청객을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시민정신도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공직기강이 무너지지 않고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공직기강은 포천시민이 세워야 한다. 그리고 포천시의회가 이를 대변해야 한다.

특별인터뷰 일동노인대학 학장 권철석

“건강과 행복해지는 지혜를 배운다”

존경받을 수 있는 노인상 정립 위해 일동노인대학 운영

‘건강과 행복해지는 지혜’를 교육목표로 삼아 아름다운 우정의 장소를 마련하고 정철하고 정리, 정돈된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과 보람을 느끼며 존경받을 수 있는 노인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동노인대학 권철석(70·사진)학장은 “대학운영에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은 전문강의실이 없는 사실”이라며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대학 강의실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동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는데 수강생들이 노인대학에 참석할 수 있도록 버스를 지원해주면 좋겠다.

권 학장은 우리사회가 노인대학뿐만 아니라 노인 전체를 이해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노인이 된다. 노인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동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는데 수강생들이 노인대학에 참석할 수 있도록 버스를 지원해주면 좋겠다.

권 학장은 우리사회가 노인대학뿐만 아니라 노인 전체를 이해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노인이 된다. 노인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동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는데 수강생들이 노인대학에 참석할 수 있도록 버스를 지원해주면 좋겠다.

권 학장은 우리사회가 노인대학뿐만 아니라 노인 전체를 이해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노인이 된다. 노인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동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는데 수강생들이 노인대학에 참석할 수 있도록 버스를 지원해주면 좋겠다.

사소한 부주의가 화재발생의 원인

포천소방서 올 상반기 245건 분석결과



포천소방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화재건수 분석 결과를 밝혀졌다.

사소한 부주의가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포천소방서(서장 이보형)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화재건수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올 상반기 발생한 화재는 245건으로 작년 동 기간 267건보다 22건(-8.2%) 줄었으며 인명피해도 1

명(-6.7%)이 감소했고, 재산피해는 22억여원으로 지난해보다 9억여원(76.8%)이 증가했으며, 일일 평균으로는 1.1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0.1명의 인명피해와 일일 9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화재가 발생한 장소별로는 공장 54건(22%), 주택 34건(14%), 근린 21건(8.6%), 차량 19건(7.7%), 동식

물 12건(4.8%)으로 영세공장이 산재되어 있는 공장에서 비율이 높게 나왔으며, 원인별로는 부주의 93건(38%), 전기 73건(29.7%), 기계적 요인으로 34건(13.8%) 순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는 부주의로 7명(50%), 전기, 가스, 방화로 각 2명씩 발생하여 부주의에 의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부주의 유형은 담배꽂초 방치가 23건(24.7%)으로 가장 많았으며, 쓰레기 소각 21건(22.5%), 불씨, 불꽃, 화원방치 10건(10.7%), 음식물 조리 중 7건(7.5%), 가연물 근접방치 7건(7.5%) 순으로 나타나 담배꽂초 방치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흡연자의 화재안전의식 개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화재조사팀 최수만 조사관은 화재분석을 통해 “개개인이 가정에서 직장까지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전기, 가스, 담배, 불티 등 사용수칙 등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소방서에서도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여름철 무더위로 냉난방기 및 선풍기에 의한 전기화재가 많이 발생하므로 휴가를 떠나기 전 가정에서 전기, 가스 등을 확인, 점검하고 차량에는 초기진화에 필수적인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법 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 캠페인

포천경찰서 협력단체와 함께 주요 교차로마다



포천경찰서는 7월8일 오전 7시30분 아침 출근시간대 정체지역인 유한아파트사거리 및 각 지구대(파출소)별 주요교차로에서 법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 캠페인을 실시했다.

포천경찰서(서장 양종렬)는 7월8일 오전 7시30분 아침 출근시간대 정체지역인 유한아파트사거리 및 각 지구대(파출소)별 주요교차로에서 경찰관 30명, 모범 운전자회 20명, 녹색어머니회 10명, 자율방범대 20명 등 총 80여명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경비교통과장은 무더운 날

씨에 캠페인에 참석한 경찰관, 협력단체 등 노고를 치하하면서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자며 자체 제작한 홍보물(전단지, 불펜) 등을 나눠주는 홍보활동으로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고취시켜 법질서 확립 문화를 조성하고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의회 2대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

포천시의회(의장 이강립)는 10~11일 이틀에 걸쳐 제2대 후반기 신입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

10일 오전 10시 의회 연장자인 김영자 의원의 사회로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 제2대 시의회의 후반기를 이끌어 나갈 신입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투표 방식은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으로 기표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지며, 재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11일 오전 10시에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의장단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등 3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별도로 간사를 선출할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역전의 용사’ 6·25 참전전우회 한자리

군내면 6·25 참전전우회 30여명 처우문제 협의

군내면 6·25 참전전우회(회장 이재구) 회원 30여명은 7월7일 모임을 갖고 먼저 간 동료들의 넋을 기리고 처우문제 및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를 했다.

이날 회원들은 58년 전 생사의 기로에서 간박하게 전투에 임했던 당시를 회상했고 해마다 회원이 줄어드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며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서로를 위로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두원 군내면 방위협의회 부위원장이 참석해

회원들을 위해 선물(40만원 상당)을 증정했으며 참전 미망인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발굴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회원은 “국가를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운 우리를 주변에서 알아주어 참전했던 것에 자부심이 든다”며 흐뭇해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Subscription information for Pocheon News,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rates.

Large advertisement for Pocheon News featuring the slogan '언제나 바른뉴스!' and the website www.ipcs21.com. It includes details about subscription and advertising rates.